

항해사의 개념에 관한 연구

김 성 준*

A Study on the Concept of Navigational History

*Sung-June Kim**

Abstract	Ⅲ. 역사의 대상으로서의 항해
I. 머리말	Ⅳ. 항해사의 개념
Ⅱ. 역사의 의미	Ⅴ. 맺음말

Abstract

History will be defined as a science on human beings in both space and time(des hommes dans le temps et l'espace). Navigational History is a premise to compose Maritime History. Maritime History is a branch of General History which is classified on the basis of space and will be defined as a branch of history to examine 'inter-relations between maritime affairs and inland affairs'. Then, what kind of 'go by sea' can be a subject of Navigational History? A research-subject of Navigational History must be *navigation* rather than *sail* or *voyage*. Because while 'sail' means to 'passive and noncommercial sailing' and *voyage* means to journey in a general sense that includes sail and navigation, navigation means to indicate 'to go from one place to another in a ship' and 'to convoy goods by water'.

Then, how can we define Navigational History? Navigational History in a narrow sense is to be a field of studying 'process of development of nautical science and seamanship on the side of History of Science and Technique, whereas Navigational History in a broad sense is to be a field of analyzing 'effects of historical navigation upon history on the side of General History. On studying Navigational History in a narrow sense, there are significances of disclosing what the development of nautical instruments and arts of navigation have played a role in history. Navigational History in a broad sense is a branch of General History to study effects of historical navigation upon history.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studying

* 고대 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본 논문은 97년 한-중 항해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A Study on the Concept of Navigational History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Navigational History is to disclose process of development of arts of navigation, and on the basis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the human elements operate in historical navigation. In short, it should not cease to study Navigational History in a narrow sense, and should enlarge its perspective of research toward Navigational History in a broad sense.

I. 머리말

최근 항해사(Navigational History)¹⁾와 관련된 논의가 전개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²⁾ 그러나 이는 항해사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장보고의 해상활동의 배경과 그 의의를 궁구해 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항해사란 무엇이고, 그 연구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필자는 오랫동안 해양사(Maritime History)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해양사는 단순히 해양을 소재로 한 역사는 아니며 '해양과 내륙 역사의 상호관계'³⁾를 규명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에 크게 해전사(History of Naval War), 해운사(History of Shipping), 수산사(History of Fishery), 해양개발사(History of Marine Development) 및 해양탐험사(History of Ocean-Exploration)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해양사를 구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가 바로 항해사이다. 왜냐하면, 바다를 무대로 전개되는 해전, 해운, 수산, 해양개발 및 해양탐험 등은 항해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본고는 해양사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연구인 항해사의 연구 대상은 무엇이고, 그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연구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구상된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II장에서는 학문으로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III장에서는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해는 무엇인가를 살펴본 뒤, IV장에서는 항해사의 개념을 시론적인 수준에서나마 제시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해사를 연구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볼 것이다.

II. 역사의 의미

우리가 '역사'⁴⁾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즉 첫째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 즉 사건(Geschehen, Begebenheit)을, 두 번째는 '일어난 일에 대한 연구', 즉 역사학(Geschichte)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다.⁵⁾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

1) 이에 반해 손광기 교수는 항해사를 Navigation Hisotry라 표기하고 있는데, 역사학의 분야사 가운데 경제사를 Economic History, 정치사를 Political History, 문화사를 Cultural History 등으로 표기하는 것을 상기할 때 항해사를 Navigational History라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Sun, Guangqi, A Research into the Sea Routes between Silla and Tang from the 8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1996 Korea-China International Symposium, Oct., 1996 p. 23 참조.

2) Guangqi Sun, 상계논문과 Hugh, Ihl, Revisit to the Ennin's Diary, 1996 Korea-China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Nov., 1996 등 참조.

3)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양근대사를 고찰한 사람이 알프레드 마한(Alfred Mahan)이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해군사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마한은 "해양력의 역사는 비록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군사(military history)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1890), 12ed.(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p. 1.

4) 동양 3국에서 사용하는 '역사'란 말은 명 나라 말기 袁黃이 편찬한 『歷史綱鑑補』라는 서명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동식, 「역사의 의미」,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실 편, 『역사란 무엇인가』(고려대출판부, 1985), p. 14 참조.

1831)은 이를 역사란 말에 내포된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라고 지적하였다.⁶⁾ 여기에서는 학문(Wissenschaft)의 한 분과로서 역사학을 다룰 것이므로 역사학을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기로 한다.⁷⁾

인문과학의 한 분과로서 역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다. 역사학에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나 저서에서 시간에 대한 관념이 빠져있을 때는 우리는 이를 ‘비역사적’(nicht-geschichtlich)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얘기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간을 의미하는가?

역사가이 주로 다루는 대상은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학을 ‘호고적(antiquarisch) 학문’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⁸⁾ 그러나 역사가이, ‘객관적 역사서술의 창시자’⁹⁾라고 일컬어지는 랑케(Leopold von Ranke, 1795~1885)가 언명한 바와 같이, 과거에 ‘그것이 과연 어떠한가’(wie es eigentlich gewesen ist)¹⁰⁾만을 다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¹¹⁾라고 얘기한 카아(E. H. Carr, 1892~1982)에게 역사는 오히려 현재였다.¹²⁾ 왜냐하면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가 정식화한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Jede

wahre Geschichte ist Geschichte der Gegenwart)”¹³⁾라는 명제를 받아들였던 카아는 “살아있는 현재적 관심만이 우리에게 하나의 가버린 사실을 연구하도록 충동하기 때문”¹⁴⁾에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⁵⁾ 그러나 “역사는 과거의 사건과 점차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미래의 목적과의 대화”¹⁶⁾라고 얘기했을 때 카아가 염두해 두었던 것은 역사에는 미래의식이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사연구에 있어서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들은 자기가 연구하는 사건이 후속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서술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역사가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바이다. 따라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나 현재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에서 다루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불가분하게 통시적(diachronisch)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학은 또한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역사학이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사회학(Sociology)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회학이 현재 사회 속의 인간을 다룬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¹⁷⁾ 마르크 블로흐(Marc Bloch, 1886~1944)는 역사학의 연

5) Friedrich Hegel, *Vorlesung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Frammannes Verlag, 1928), 김종호 역, 「역사철학강의」(삼성출판사, 1992), p. 121; E. Bernheim, *Einleitung in der Geschichtswissenschaft*(1912), 박광순 역, 「역사학입문」(범우사, 1991), p. 15.

6) Friedrich Hegel, *Ibid.*, p. 121.

7) 아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학과 역사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8) F.W. Nietzsche, *Vom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Reclam Stuttgart, 1973), s. 24. 이상신, 「역사학개론」(신서원, 1994), p. 53 재인용.

9) Helmut Berding, Leopold von Ranke, in *Historiker I*, hrs. von H. Wehler(Vandenhoeck-Ruprecht: Göttingen, 1971), p. 7.

10) Leopold von Rake, *Geschichte der romanischen und germanischen Völker, Vorrede*. 이상신, 「서양사학사」(신서원, 1993), p. 451 재인용.

11) E.H. Carr, *What is History?*(Cambridge, 1961), 길현모 역, 「역사란 무엇인가?」(탐구당, 1996), p. 39.

12) 역사에서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Croce, Collingwood, Carr 등을 현재주의자(Presentist)들이라고 한다. 이상신,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서양사론」 36호(1991, 6), p. 8 참조.

13) Benedetto Croce, *Zur Theorie und Geschichte der Historiographie*(Tübingen, 1915), 이상신 역, 「역사의 이론과 역사」(삼영사, 1987), p. 12.

14) Croce, *Ibid.*, p. 12.

15) E.H. Carr, *op. cit.*, p. 39.

16) E.H. Carr, *Ibid.*, p. 194.

17)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역사사회학(Historical Sociology)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역사학과 사회학을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연구가 일단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행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역사사회학에 대해 펼

구대상에 대해 “본래 인간(l’homme), 정확하게는 인간들(les hommes)”¹⁸⁾이라고 간결하게 언명하면서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의 말을 인용하여 “결코 인간이 아니라 인간사회이며, 조직되어진 집단”¹⁹⁾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학의 대상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 즉 조직된 집단 또는 사회 내의 인간”²⁰⁾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은 사회 속에서 조직된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사상적 활동 등에 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상기한다면, 비코(Giambattista Vico, 1668~1744)가 역사를 “인간이 언어, 습관, 법률, 정부 등의 체계를 만듦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며, “인간의 사회와 인간의 제도의 발생 및 그 발전의 역사”²¹⁾로 정의한 의도도 이해될 만하다.

역사학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요소는 공간적 배경이다. 앞에서 역사는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정의한 바 있지만, 역사학은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적 배경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이 활동하는 무대인 공간을 필자는 크게 육지와 해양으로 나누고자 한다. 물론 인간이 그들 삶의 많은 부분을 육지에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야지대, 삼림지대, 사막지대, 초원지대 등으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인류 전체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간과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가들은 해양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사 중심의 역사서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아날학파의 대가인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의 대표작인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²²⁾는 해양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도 해양 그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단지 레판토 해전(1571)이나 신성동맹(Holy League, 1566~1570) 등의 정치적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지속되면서 일종의 장기적 구조를 형성하는 지리적 배경의 한 요소로서 지중해라는 해양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²³⁾ 이처럼 전통사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아날학파에게 있어서도 해양은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이 역사학의 관심밖에 놓이게 된 원인은, 알프레드 마한(Alfred Mahan, 1840~1914)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해양의 사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며, 특히 해양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도 특별한 지식도 갖고 있지 않고”,²⁴⁾ 해양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건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만족”²⁵⁾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사를 연구하는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그것은 역사학이 간과해 버린 해양이라는 공간을 복원시킨다는 데 있는 것이다.

블로끄는 역사를 “시간 속의 인간에 관한 학문

립 아브람즈는 “시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의 개인의 활동과 경험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Philip Abrams, *Historical Sociology*(Cornell Univ. Press, 1982), 인용하 외역, 『역사사회학』(문학과 지성사, 1992), p. 41 참조.

18) March Bloch, *Apologie pour, ou métier d'historien*(Paris, 1941), 정남기 역, 『역사를 위한 변명』(한길사, 1981), p. 43.

19) Lucien Febvre, *La Terre et l'évolution humaine*, p. 201; March Bloch, *Ibid.*, p. 44 인용.

20) 민석홍, 「하나의 새로운 역사--Annales학파에 관하여」, 『역사학보』 79호(1978), p. 159.

21) Giambattista Vico, *Scienza Nuova*(1730). R.G. Collingwood, *Idea of History*, 이상현 역, 『역사학의 이상』(박문각, 1990), p. 166~167 재인용.

22)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Epoque de Philippe II*, rev. ed.(1966), trans. by Siân Reynolds,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Harper & Row, Publishers; N.Y., 1973).

23) F. Braudel, *Ibid.*, Part One; The Role of the Environment 참조.

24) Alfred Mahan, *op. cit.*, p. iii.

25) *Ibid.*, p. v.

(des hommes dans le temps)²⁶⁾이라고 정의한 바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역사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시간적 흐름 속에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시·공간 속의 인간에 관한 학문’(des hommes dans le temps et l'espace)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역사의 대상으로서의 항해

그렇다면 어떠한 항해가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앞에서 항해사를 Navigational History라 표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였다.

우리말 사전에 항해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 또는 ‘선박에 의해서 여러 항구 사이를 왕복함’²⁷⁾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항해를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은 단순한 행위²⁸⁾나 ‘배를 타고 여러 항구 사이를 왕복하는 모든 항해’가 역사학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해를 보다 정밀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말의 항해는 그 의미가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원학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영어의 경우를 원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 항해를 뜻하는 낱말에는 *navigate*, *sail*, *voyage*가 있는데, 이 낱말들의 어원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vigate*는 라틴어의 ‘배’를 뜻하는 *navis*(navis)와 ‘조종하다 또는 인도하다’를 뜻하는 *agere*가 결합

된 말²⁸⁾로 역사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배를 타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는 행위’(to go from one place to another in a ship)²⁹⁾를, 두 번째는 ‘배를 조종하거나 지휘 또는 조종하는 행위’(to sail, direct, or manage a ship)³⁰⁾를, 세 번째는 ‘수로로 통해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to convoy goods by water)³¹⁾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navigate*가 라틴어에 어원을 둔 남방계 단어³²⁾라면 *sail*은 노르만 계통의 북방계 언어에 어원을 둔 단어로 앵글로 색슨(Anglo-Saxon)어에서는 *segel*, *segil*로 표기되어 사용되었고, 중세 시대에는 *seil*, *seyl*로 표기되어 사용되었다.³³⁾ 역사적으로 *sail*은 888년 ‘돛’을 가리키는 용례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가 893년에 이르러 ‘돛에 부는 바람을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행위’(to travel on water in a vessel propelled by action of the wind upon sails)를 뜻하는 동사로 전용되었다.³⁴⁾ 이밖에도 *sail*은 ‘바람의 추진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눈에 띄는 작용력을 이용하지 않고 수면이나 대기를 미끄러져 가는 행위’(to glide on the surface of water or through air, either by the impulsion of wind or without any visible effort)를 가리키거나 ‘돛단배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며 장엄하고 웅장하게 움직이다’(to move or go in stately or dignified manner, suggestive of the movement of a ship under sail) 또는 ‘돛을 준비하다’(to provide with sails)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ail*은 능동적이고 목적의식이 내재된 항해라기 보다는 좁게는 요트를 타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돛단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다분히 ‘수동적이고

26) M. Bloch, *op. cit.*, p. 45.

27) 이승녕 감수, 국어대사전(한서출판사, 1975), p. 911.

28)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Clarendon Press, 1989), vol. X, p. 259.

29) 이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용례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588년이다. *Ibid.*, p. 259.

30) 이 용법으로는 1670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다. *Ibid.*, p. 259.

31) 이 용법으로는 1795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다. *Ibid.*, p. 259.

32) 佐波宣平, 『海の英語』(研究社, 1972), p. 296.

33)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XIV, p. 373; 佐波宣平, *Ibid.*, p. 362.

34)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XIV, p. 371, 373.

35)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XIV, p. 373.

비상업적인 항해'를 뜻하는 단어이다.

한편, *voyage*는 '길'을 뜻하는 라틴어 *via*에서 유래한 말³⁶⁾로 최초에는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법인 '육로로 여행하다'(to journey by land)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점차 '항해하다'(to make a voyage), 또는 '횡단하여 여행하다'(to cross or travel over)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³⁷⁾ 그러나 *voyage*는 그 자체로 동사로 사용되기 보다는 명사로서 *make, do, take* 등과 함께 '육로 여행'(a journey by land), '군사적 목적의 원정'(expedition undertaken with a military purpose), '해로 여행'(journey by sea)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볼 때 *voyage*는 *navigate*와 *sail*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행'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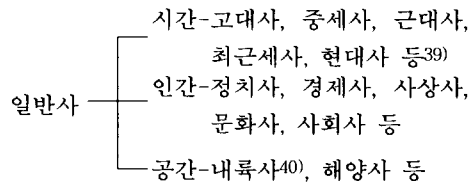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항해는 *sail*이나 *voyage*가 아니라 *navigation*일 것임이 명백해 졌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필자는 항해사를 *Sailing History*나 *History of Voyage*가 아니라 *Navigational History*라 표기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항해사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장보고(張保皋, ?~841?)의 해상활동(海商活動)을 들 수 있겠다.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한·중·일간의 해상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해운사적 측면에서 접

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화(鄭和, Cheng Ho, 1373~1434)도 7차례에 걸쳐 동남아 각국과 인도, 페르시아만까지 항해함으로써 문화교류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항해사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콜럼부스(Christopher Columbus, 1451?~1506)의 대서양 항해,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9?~1524)의 인도항로 개척 항해, 마젤란(Ferdinando Magellan, 1480?~1521)의 세계주항, 드레이크(Francis Drake, 1540?~1596)의 해상활동, 제임스 쿡(James Cook, 1728~1779)의 탐사 항해도 항해사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항해사의 개념

필자는 앞에서 역사를 구성하는 세 요소로 시간, 인간, 공간을 들었는데, 이 세 요소를 기준으로 역사학의 각 분야사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구분에서 명확해진 바와 같이, 해양사는 일반사를 공간을 기준으로하여 구분할 때의 일반사의

36) 佐波宣平, *op. cit.*, p.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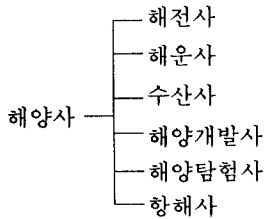
37) *Oxford English Dictionary*, vol. XIX, p. 778~9.

38) 항해자들이 원양에서 다른 선박을 만났을 때 '목적지까지 안전항해를 빙니다!'라는 뜻으로 Bon Voyage!라고 말하는데, 본래 이 말은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pleasant journey) 또는 '안녕히 가십시오!(a farewell to a traveller)라는 뜻이다.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Third College ed., 1991, p. 159.

39) 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분야사를 구분할 때 고대사나 중세사나 근대사나 하고 분류하는 것은 시간을 평면적인 흐름 속에서 구분한 것이다. 브로델은 역사적 시간을 우연한 정치적 사건에 의해 좌우되는 단기적 시간, 10년 내지 5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적 시간, 세기 단위로 장기지속적 시간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구분하여 이를 소재로 한 역사를 각각 단기지속의 역사(l'histoire événementielle=history of events), 중기지속의 역사(l'histoire conjoncturelle=conjunctural history), 장기지속의 역사(l'histoire structurelle=histoire long durée)라 하였고, 이 가운데 장기지속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학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cience Sociales : la Longue Durée, Annales*, 13, 1958, 신용하 편, 「역사학과 사회과학 ; 장기지속」, 『사회사와 사회학』 (창작과비평사, 1993), pp. 257~296. 윌러스틴은 이를 각각 우연의 역사(episodic history), 주기의 역사(cyclical history), 구조의 역사(structural history)라고 명명하고 있다. I. Wallerstein, *Unthinking Social Science*(1991), 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비평사, 1995), p. 180.

40) 이제까지 역사가들은 해양에 대해 이렇다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인간들의 내륙에서의 활동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일반사(general history)하면 곧 내륙사(inland history)를 의미하게 되어 내륙사라는 말이 다소 생경하게 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내륙사를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사로 상정하고

한 분야사가 된다. 따라서 해양사는 ‘해양과 내륙 역사의 상호관계’,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한다면 ‘해양력이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된 연구 테마로 삼는 분야가 될 것이다. 항해사는 바로 이와 같은 해양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전제라 하겠는데, 해양사를 구성하는 각 분야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해양사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일 때의 항해사는 ‘선위측정술과 선박조종술 등의 항해술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항해사는 ‘항해계기, 지도, 선박조종술 및 항로의 발전과정 등을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연구하는 분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정의는 좁은 의미의 항해사라 할 수 있겠는데, 좁은 의미의 항해사는 엄격히 말하면 과학기술사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⁴¹⁾

그러나 항해사를 이렇게 좁은 의미로만 정의할 경우에는 Radar, GPS, Total Navigator 등 항해장비가

고도로 발달하여 항해사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축소된 오늘날의 경우에는 인간적 요소가 항해사에 끼여들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오늘날은 항로라든가 선위측정 등 과거에 항해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지식만으로 선택해야 했던 것들을 거의 전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위성의 도움을 받아 행하고 있으며, 인간들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는 또한 인간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해사에 있어서도 인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학에서 인간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탈역사화’(ent-historisierung)⁴²⁾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해사를 인간적 요소가 포함된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할 필요가 대두하게 된다.

그렇다면 넓은 의미의 항해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항해사를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의식적이고 특정한 목적의식을 지닌 이른바 역사적 항해(historical navigation)가 역사 전개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역사학의 한 분야’라 할 수 있겠다.⁴³⁾ 이는 곧 인간의 세계관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는데 서구의 항해의 역사는 곧 서구인들의 세계관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항해사는 필수불가결하게 지리학사(History of Geography)와 연관되게 된다.⁴⁴⁾ 또한 넓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본다면 내륙사와 해양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 41) 좁은 의미의 항해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tewart, Glenn, San Salvador Is. to Cuba ; A Cruise in the track of Columbus, *Geographical Review*, XXI, 1931. Sun, Guangqi, A Research into the Sea Routes between Silla and Tang from the 8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1996 Korea-China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Sept., 1996. Hugh, Ihl, Revisit to the Ennin's Diary, 1996 Korea-China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Nov., 1996.
- 42) 탈역사적 경향이란 개별 학문들, 예를 들면 경제학이나 정치학 등에서 자기 학문분야의 역사를 단지 시간적인 흐름에서 조망하고 이를 경제사나 정치사라고 명명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시간적 흐름의 고찰만 있고 인간적 요인이 무시된 연구경향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신, 『역사학개론』, pp. 35~36를 참조하라.
- 43) 넓은 의미의 항해사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Davies, Arthur, Loss of Santa Mari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VIII, no. 4, Jul., 1953. Washburn, Willcomb, Meaning of Discovery in the 15th and 16th centuri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XVIII, no. 1, Oct., 1962. Andrew, K.R., Aims of Drake's Expedition of 1577-1580,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XXIII, no. 3, Feb., 1968. 김성준, 15세기 유럽팽창에 관한 연구 ;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8. 한상복, 라베루즈의 세계일주 탐사항해와 우리나라 근해에서의 해양조사활동, 한국과학사학회지, vol. 2., no. 1, 1980
- 44) 이에 대한 훌륭한 예로 R. A. Skelton, *Explorer's Maps, Charters in the Cartographic Record of Geographical*

의 항해사에서 주목할 분야는 해난(sea distress)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항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은 1912년 4월 처녀항해 도중 침몰한 타이타닉(Titanic)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조선을 이중선체(double hull)로 건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1989년 3월 알래스카 연안에서 침몰한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야기된 것과 같은 해양오염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대형해난들은 선사와 승무원들에게는 물론 해양과 주변의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운과 기타 인간의 경제활동과 심리적 상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면에서 오늘날 해양사와 항해사를 연구할 때는 간과해서는 안될 분야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좁은 의미의 항해사가 과학기술사적인 측면에서 '항해술과 항로 등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연구하는 분야'라면, 넓은 의미의 항해사는 일반사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항해가 역사전개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그렇다면 항해사를 연구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과학기술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항해사는 그 자체가 '과학사'(History

of Science)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사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항해사도 이미 여러 편 나와 있다.⁴⁵⁾ 좁은 의미의 항해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항해계기와 항해술이 발달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항해와 관련된 과학과 기술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여왔는가를 밝혀낸다는 데 그 연구 의의가 있다 하겠다.

좁은 의미의 항해사가 과학기술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에 비해 넓은 의미의 항해사는 일반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항해사는 역사전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른바 역사적 항해에서 인간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밝혀 내는데 그 연구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항해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는 해전사와 해양탐험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해운사나 수산사 또는 해양개발사 등에서는 아무래도 인간적 요소가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반면, 해전사나 해양탐험사⁴⁶⁾에서는 인간적 요소 그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마한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해전은 역사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면에서 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⁴⁷⁾ 해양탐험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이 가장 적나라하게 부각될 수 있는 분야로, 역사상 콜럼부스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대 세계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면에서 그 연구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세계의 오지까지 날날이 알려진 오늘날 탐험할 해양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오늘날의 해전도 인간적 요인 보다는 우수한 장비와 기계의 영향

Discovery(1958), 안재학 역, 『탐험지도의 역사』(새날, 1995)가 있다.

- 45) 과학사적인 측면에서 항해사를 다루고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ynn White, Jr., "What Accelerate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Western Middle Ages?", in A. C. Crombie, ed., *Scientific Change*(N.Y. ; Basic Books, 1963). Carlo Cipolla, *Guns and Sails in the Early Phase of European Expansion, 1400-1700*(London ; Collins, 1965).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I, Chap. 7(1954), 이석호 외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I(울음문화사, 1985), 7장. John Pryor, *Geography, Technology and War ; Studies in the Maritime History of the Mediterrean, 649-1571*(Cambridge Univ. Press, 1988)
- 46) 김신은 탐험사는 '어떻게 탐험이 사회적·법제적·과학적으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그 중심과제'이며 '과거에 탐험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었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김신, 『탐험의 세계사 I ; 최초의 탐험가』(두남, 1997), p. 10 참조.
- 47) Alfred T. Mahan,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 Influence of Sea Power upon French Revolution and Empire 1793-1812*(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892) 참조.

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해전사나 해양탐험사는 더 이상 연구할 대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는 시간과 더불어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인데, 더 이상 연구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넓은 의미의 항해사에서 주목할 분야는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해난(sea distress)이다. 어떤 의미에서 해난은 해양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역사가 반드시 영광과 승리의 기록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불명예와 실패의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내일의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해난의 원인을 탐구하고 그와 유사한 해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데 주목하여 항해사를 연구하는 데 넓은 의미의 항해사를 연구하는 또다른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항해사에 대한 연구가 이른바 좁은 의미의 항해사, 즉 과학기술사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좁은 의미의 항해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난 뒤에는 역사 전개에 영향을 끼친 넓은 의미의 항해사에 대한 연구로 그 연구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해사가 일반사와 어떠한 영향사적인 관계에 있었던가를 밝혀내는 것이 항해사를 연구하는 더 본질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Bernheim, E., *Einleitung in der Geschichtswissenschaft*(1912), 박광순 역, 「역사학입문」(범우사, 1991)
- 2) Bloch, March, *Apolologie pour, ou métier d'historien*(Paris, 1941), 정남기 역, 「역사를 위한 변명」(한길사, 1981), p. 43.
- 3) Braudel, Fernand,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Epoque de Philippe II*, rev. ed.(1966), trans. by Siân Reynolds,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Harper & Row, Publishers ; N.Y., 1973)

- 4) Carr, E.H., *What is History?*(Cambridge, 1961), 길현모 역, 「역사란 무엇인가?」(탐구당, 1996),
- 5) Collingwood, R.G., *Idea of History*, 이상현 역, 「역사학의 이상」(박문각, 1990)
- 6) Croce, Benedetto, *Zur Theorie und Geschichte der Historiographie*(Tübingen, 1915), 이상신 역, 「역사의 이론과 역사」(삼영사, 1987)
- 7) Hegel, Friedrich, *Vorlesung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Frammannes Verlag, 1928), 김종호 역, 「역사철학강의」(삼성출판사, 1992)
- 8) Mahan, Alfred T.,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1890), 12ed.(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 9)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Clarendon Press, 1989)
- 10) Wallerstein, Immanuel, *Unthinking Social Science*(1991), 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창작과비평사, 1995), p. 180.
- 11) 佐波宣平, 「海の英語」(研究社, 1972)
- 12) 김신, 「탐험의 세계사 I ; 최초의 탐험가」(두남, 1997)
- 13) 이상신, 「역사학개론」(신서원, 1994)
- 14) 이상신, 「서양사학사」(신서원, 1993)
- 15) 이승녕 감수, 국어대사전(한서출판사, 1975)
- 16) Andrew, K.R., Aims of Drake's Expedition of 1577-1580,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XXIII, no. 3, Feb., 1968
- 17) Braudel, Fernand, Histoire et Science Sociales : la Longue Durée, *Annales*, 13, 1958, 신용하 편, 「역사학과 사회과학 ; 장기지속」, 「사회사와 사회학」(창작과비평사, 1993)
- 18) Davies, Arthur, Loss of Santa Mari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VIII, no. 4, Jul., 1953
- 19) Hugh, Ihl, Revisit to the Ennin's Diary, 1996 Korea-China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10 韓國航海學會誌 第21卷 第4號, 1997

Nov., 1996

20) Stewart, Glenn, San Salvador Is. to Cuba ; A Cruise in the track of Columbus, *Geographical Review*, XXI, 1931.

21) Sun, Guangqi, A Research into the Sea Routes between Silla and Tang from the 8th Century

to the 9th Century,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1996 Korea-China International Scientific Symposium

22) Washburn, Willcomb, Meaning of Discovery in the 15th and 16thcenturi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XVIII, no. 1, Oct., 1962